

WE START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 2024 Vol. 14



스무 살의 청춘을 일컬어 남자는 약관, 여자는 방년이라 칭한다. 차별적인 의미는 없고 둘 다 비교적 젊은 시절, 꽃이 화사하게 피는 좋은 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 탈바꿈하는 때이다. 위스타트의 20살도 같은 맥락이고 싶다. 그간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바르게 조심조심 지나온 20년이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성과를 높이 드러내는 때가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 04 커버스토리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
- 06 20
난생처음 20km
20세기 클래식 음악을 연 드뷔시
나의 두 번째 스무 살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 14 필드
아이들과 만난 지 141일째
바르게 자란다는 것
괜찮아? 괜찮아
- 20 여행
대전보다 더 유명한 대전 빵집, 성심당
- 22 20th anniversary special
people
history
the chairman's column
Q&A
- 32 사업 현황 및 재정보고
- 34 위스타트 뉴스
- 50 Editor's note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인 김수길
 발행처 사단법인 위스타트
 기획, 편집 사단법인 위스타트
 전화 02-318-5004
 홈페이지 www.westart.or.kr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디자인 (주)일스
 콘텐츠 위스타트 소식지 14호



COVER STORY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



가수 홍이삭

JTBC싱어게인3-무명 가수전은 제목에서처럼 재능은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무명가수들을 유명 가수로 만들어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미 시즌 1, 2를 통해 화제성을 입증했고, 싱어게인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조회수를 휩쓸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좋았다. 애매한 지점에서 끊어버리지도, 감질나게 다음 주로 넘어가지도 않고, 한 곡의 노래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한 명의 가수에게 오롯이 조명을 비추며 시청자들도 방해받지 않고 꼭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또 하나의 재미는 어딘가에서 봤던 얼굴들을 찾는 것이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하면서 기억을 되새겨 보게 하는 것. 끝까지 검색해 보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떠올랐을 때의 그 쾌감!

나에게 58호 가수가 그랬다. 무슨 소리야?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팬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내에게는 그런 가수였다. 무려 5년 전에 위스타트 금융인성교실 대학생 봉사단 해단식 축하 무대로 초대되어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홍이삭님이 왔었는지는 몰랐었다. 싱어게인 모든 시즌을 다 시청한 애청자로서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우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고 결국 예상이 맞았다.

‘유통기한이 알고 싶은 가수’ 58호로 싱어게인3에 참가한 홍이삭. 오디션부터 파이널 라운드까지 꾸준히 좋은 무대를 선보이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동상을 받으며 데뷔한 홍이삭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다고 한다. 혼자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홍이삭의 음악은 싱어게인 심사위원들의 평가처럼 광활한 바다 같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낯가에 속삭이듯 편안하고 포근한 음색을 가진 보컬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그가 표현하는 음악적 공간이 커지고 넓어진다.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표현할 줄 아는 가수, 보여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가수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홍이삭의 무대를 볼 때마다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나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홍이삭님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았다. 매 라운드를 준비하고 마치면서 쓴 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기록하며 복기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항상 온 마음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며, 노래를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의 질문에 답은 찾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싱어게인 첫 무대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가수로서의 유통기한이 무한대가 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홍이삭은 싱어게인3 우승후 첫 싱글을 발표한다. 2월 29일 발매하는 ‘사랑은 하나니까 (Prod. 최유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을 응원하는 노래로,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동문으로 인연을 이어온 싱어송라이터 최유리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홍이삭이 ‘싱어게인3’ 출연 당시 최유리의 ‘숲’ 무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어, 두 사람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사진출처 : JTBC 싱어게인



난생 처음 20km

류민하 작가



“마라톤이 폼 나죠? 인간승리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다 현실 도피예요. 그냥 사는 게 갑갑하니까 그런 걸로 대리만족하는 거라고요.”

영화 <말아톤> 초반부에 나오는 대사다. 자폐증이 있는 초원이가 42.195km의 풀 마라톤을 세 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초원이 엄마 부탁에, 코치는 통명스럽게 거절하면서 저 말을 한다. 그리 강조되지 않고 지나가듯 처리된 대사였는데, 당시 10대였던 내게도 이상하게 인상적이었다. 영화를 본 뒤로 긴 세월이 흘렀고, 나는 첫 회사를 그만둔 뒤 달리기를 시작했다.

4년 넘게 달리기를 하면서도 하프나 풀 마라톤에 도전하지는 않았다.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나 같은 일반인이 10km가 넘는 거리를 뭘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무척 대단해 보였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왜 의미 없는 고행을 하는 거지? 꾸준히 5km 내외만 뛰어도 건강에는 충분히 좋고, 일상에 활력이 생긴다. 가끔 10km 대회 정도에 출전해 기록을 조금씩 앞당기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20km가 넘는 하프나 풀 마라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겨졌다. 물론 대회 전에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페이스를 낮추면 언젠가 완주가 가능하긴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던 말인가.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달라지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려운 데 반해, 밖으로 나가서 달리고 마약 같은 고양감을 느끼는 건 쉽다. 그저 현실 도피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난해 나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마라톤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준비하던 일이 잘 안되고, 지긋지긋하게 찾아온 막막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막연히 기대하던 희망이 사그라졌으므로 다음 붙잡을 것이 필요했다. 대체 뭘 붙잡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매주 주말에 단체 훈련이 있었고, 주중엔 짜여진 프로그램을 참고해 개인 훈련을 했다. 천천히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즐거웠다. 차근차근 뭔가 준비하는 나를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이었다. 2주 차 단체 훈련에서는 야트막한 산을 달렸고, 3주 차에는 잠실보조경기장 트랙에서 5km 기록을 켜다. 어느새 훈련 기간이 반환점을 돌았다. 벌써 슬슬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 남은 단체 훈련을 소화하고 한 주가 지나면 대회다. 아마 높은 확률로 완주하겠지. 대회가 끝나고 찾아올 허무함이 나를 벌써 삼켜오는 것만 같았다. 정말로 나는 하프 마라톤을 꾸역꾸역 완주하고 난 뒤 막닥뜨릴 무의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려웠다.

마지막 단체 훈련을 하는 날이 됐다. 1시간 40분간 쉬지 않고 석촌호수를 달리는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코치님은 아주 느린 페이스로 훈련팀을 이끌었지만, 한 시간 반이 지나고 호수를 여섯 바퀴째 돌 무렵이 되자 슬슬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뒤로 쳐진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코치님이 몇 안 되는 남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며 훈련팀 대열은 완전히 흩어졌다.

사람들의 등으로 막혀 있던 시야가 활짝 열렸다. 한 시간 반 동안 견뎌왔던 데 아직 힘이 남아있었다. 아껴놓은 힘을 이번 바퀴에 다 털어 넣기로 했다. 천천히 속도를 끌어올렸다. 지면 위를 팡팡 튀어가듯 질주하는 기분을 한껏 들이마시면서 가로수 그늘 터널 속을 달렸다. 호수의 풍경이 빠르게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지막 커브를 돌아 끝인 지점으로 들어왔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스프린트였다. 숨을 몰아쉬며 새삼 깨달았다. ‘오래전부터 나는 달리기의 이런 순간을 특히 사랑했었지’

달리기는 이미 내게 충분히 많은 것을 주었고, 그럼에도 아직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일은 달리는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몫이었다.

대회 당일 비가 온다더니, 주로 위 하늘에는 구름만 낮게 떠다녔다. 빗방울로



안홍구 포토그래퍼 (@h9ahn)
심채린 포토그래퍼 (@linchaez)

몽ଚ지지 못한 미세한 수분을 품은 공기는 몹시 습하고 무거웠다. 운동장에서 몸을 푸는데, 웬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꼭 날씨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훈련 궤적을 고려하면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하프 첫 출전에 좋은 기록을 노리기에는 무리였다. 초반에 무리해서 페이스를 당겨놓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 나는 10km 급수대를 지나고부터 걷기 시작했다. 다시 뛰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 또 걸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린 것 같았다.

머릿속이 멍한데, 무척 맑기도 한 것 같은 묘한 기분. 러너스 하이 초기 단계 같은 걸까. 마치 불러 처리를 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러너들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고, 주로 위에서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나에게만 온 정신을 모았다.

10km가 넘는 달리기는 의미 없는 고행이라고 생각했었지. 게다가 기록의 관점에서 이미 망해버린 레이스다. 그런데 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걸까.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그게 전부였다.

마음을 다해 뭔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어렵듯이 깨달았다. 나는 쉽게 의미를 재단하고 냉소하는 대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사랑하고 기꺼이 몰입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 계속 뛰어갔다.

결승선으로 향하는 마지막 1km의 오르막은 무척 가혹했다. 간신히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온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도를 높였다. 트랙 반 바퀴를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다. 몇 초 뒤 기록 문자가 날아왔다.

역시 기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는 여전히 쫓는다. 얼마든지 또 즐겁게 의미 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언젠가 풀 마라톤에 도전해 멋지게 완주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앞으로 달리기가 함께하는 삶을 한껏 즐길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 훈련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분명 후들거리고 있지만 웬지 단단하게 느껴지는 걸음이었다.



20세기 클래식 음악을 연 드뷔시

안우성 성악가

‘벨 에포크(belle époque)’는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등 전 분야에 있어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서 예술 또한 그 꽃을 피워냈다. 예술가들은 이전의 예술사조인 낭만주의에 반발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문학에서는 상징주의, 미술에서는 인상주의를 탄생하게 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찰나의 순간들을 화폭에 고정하게 했다면 그 순간들을 음악으로 담아낸 이도 있었다. 바로 아실 클로드 드뷔시(1862~1918)다.

드뷔시는 상징주의 작가들이나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통적인 작법이나 기교에 간히길 강력히 거부했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악상들을 그저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과 무의식의 세계를 담아 모환적으로 그려내길 추구했다. 이렇게 드뷔시에 의해 탄생한 사조가 바로 인상주의 음악(impressionistic music)인 것이다. 드뷔시의 작품 중 인상주의 음악의 태동을 알리는 ‘달빛(Claire de lune, 1890)’이나 인상주의 음악의 시금석과도 같은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1894)’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1892년 30살의 드뷔시는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의 작곡에 착수한다. 원래는 전주곡, 간주곡, 종곡의 3부를 구상했으나 전주곡만으로도 완벽한 ‘시의 음악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해 나머지는 작곡하지 않고 전주곡만을 남겼다. ‘목신의 오후’는 착수한 지 2년 만에 완성됐고, 1894년 프랑스 국민음악협회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으며 인상주의 음악에 있어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902년 드뷔시는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굳건히 다지는 데 성공했다. 자신의 음악 수준이 최고조에 도달했던 시기에도 드뷔시는 차기작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창작으로부터의 도피였을까. 결혼생활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외도로 사회적 물의와 비난을 물고 다녔던 드뷔시는 또다시 문체적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바로 드뷔시가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였던 엠마 바르닥(1862-1934)이란 이름의 여성이었다. 심지어 엠마 바르닥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드뷔시 아내 릴리(부인 로잘리 텍시에의 애칭)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배신감을 견뎌내지 못한 릴리는 급기야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이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904년 이 한바탕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자 드뷔시는 엠마 바르닥과 함께 영국령의 저지섬으로 도피여행을 떠나게 되고 1905년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땐 드뷔시와 엠마 바르닥은 사실상 부부가 돼 있었다. 이견이 없을 부도덕한 행태지만 드뷔시에게 있어선 인생의 격랑과도 같은 시기이자 작가로서 정점인 원숙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 ‘바다, 3개의 교향적 스케치(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pour orchestre, 1904)’다.

드뷔시는 바다를 좋아했던 작곡가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그의 인상주의 작품은 묘사를 통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이 작품의 모티브 또한 그의 눈과 귀에 담겼던 바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안에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 아래에서’라는 판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거센 파도, 고평화 속에서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바다의 웅장함과 불안정의 인상을 담아낸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젊은 시절 천재 작곡가 드뷔시의 탐미욕은 음악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장본의 희귀 서적이나 아시아의 이국적인 판화 그림, 도자기 같은 고가의 골동품들마저도 자신의 눈에 든 물건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가난한 학생 시절에도 고급 살롱을 드나들며 사교 활동을 즐겼고, 술한 여성들과 염문설을 뿌렸던 여성 편력의 아이코이기도 했다.

그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가브리엘 뒤퐁이란 이름의 여인은 드뷔시의 변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할 정도였으며, 부인이었던 로잘리 텍시에에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한 바 있다.(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드뷔시의 무분별한 남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년의 나이가 된 드뷔시는 1904년 42세의 나이로 로잘리 텍시에와 이혼하고 엠마 바르닥과 재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5년 10월 30일 드뷔시는 엠마 바르닥과의 사이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얻게 된다. 두 부부는 드뷔시의 이름인 클로드와 바르닥 부인의 이름인 엠마에서 각각 이름을 따와 딸에게 클로드 엠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덧붙여 슈슈라는 애칭까지 지었다.

마흔이 넘은, 당시로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첫 자식을 얻게 된 드뷔시는 매일

매일이 천국만 같았을 것이다. 일순에 ‘딸 바보’가 돼버린 드뷔시는 사랑스러운 딸 클로드 엠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고, 그 동심 어린 눈에 투영됐던 상상의 나라들을 특유의 몽상적 색채를 더해 작품을 그려냈다. 나이가 먹어서도 유독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특별한 추억들을 남들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 드뷔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드뷔시는 어렸을 때의 추억과 기억 풍경들을 고스란히 기억해 내 다 큰 어른의 시선으로 담아, 딸에 대한 각별한 감동과 사랑을 담아 음악으로 탄생시켰는데 바로 <어린이 세계>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차지>라는 작품이다.

제목인 ‘어린이 차지(Children’s corner)’란 ‘어린이가 차지한 영역’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 말하자면 ‘어린이가 차지한 세상’, 작곡가인 한 어린이 동심으로 바라본 ‘어린이의 세상’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드뷔시는 딸이 태어난 이듬해인 1906년 작품의 제3곡인 ‘인형의 세레나데’를 먼저 작곡했고, 190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완성했다. 전체 작품은 제1곡 ‘그라뒤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 제2곡 ‘코끼리의 자장가’, 제3곡 ‘인형의 세레나데’, 제4곡 ‘춤추는 눈송이’, 제5곡 ‘작은 양치기’, 제6곡 ‘골리워그의 케이크 워크’ 등 총 6곡으로 이뤄져 있다.

프랑스인인 드뷔시는 이 작품의 제목과 각각의 부제들을 영어로 작명했는데, 여기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당시 사랑스러운 딸 클로드 엠마는 영어 공부에 한창이었는데 막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딸에게 작은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한 드뷔시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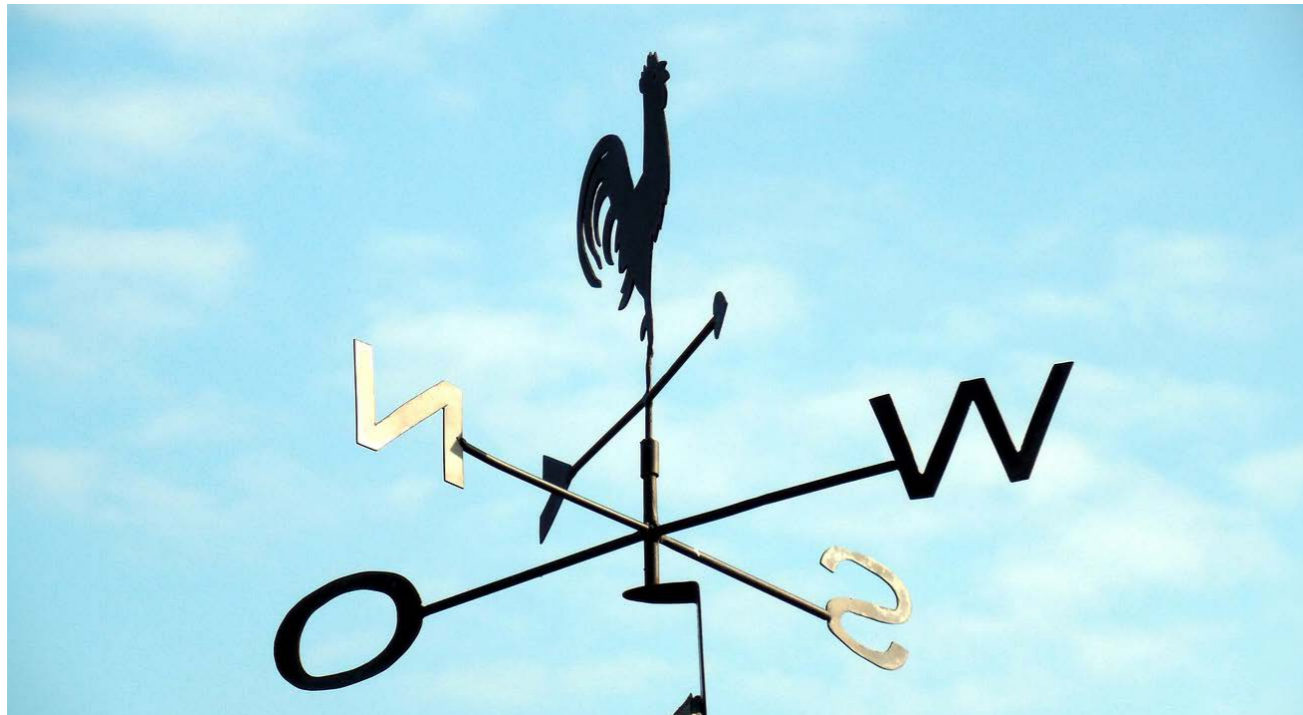
작품은 ‘소중하고 귀여운 슈슈에게’라는 헌사와 함께 사랑하는 딸 클로드 엠마(슈슈)에게 헌정되었으며 1908년 12월 파리의 세르클 뤼지칼에서 이뤄졌다. 총 6곡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스페인풍의 이국적 세레나데 제3곡 ‘인형의 세레나데’로, 아이가 인형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나의 두 번째 스무 살

이미션 작가



거울 안에는 나와 다른 내가 있다. 깊고 많아진 주름, 눈에 띄는 흰머리, 푸석 푸석한 피부, 썩은 눈빛. 그건 분명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일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려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도 거울은 '나는 틀림없이 너야'라고 각인 시키듯 그 모습 그대로 섰다. 그건 분명 나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마흔의 나. 늘 이 팔청춘일 줄 알았던 걸까. 변한 나의 모습은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계란 한 판을 앞에 두고 이제 30대라며 세상 다 산 듯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흔이 됐다. 시간은 빛의 속도와 견주더라도 하려는 걸까. 너무도 빠르게 앞질러 간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는 불혹인데 어째서인지 나는 여전히 완전히 않은 인간으로 남아있다.

'마흔 앞이'라는 말이 있다. 마흔 즈음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한단다. 사춘기에도 크게 방황한 적 없는 나인데 두 번째 사춘기는 만만치 않았다. 상상하던 마흔과 너무도 다른 나에게 실망했고,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 놓지 않은 내가 불쌍했다.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다. 신세한탄만 이어졌다.

하고 싶은 게 많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런데 남편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높고 두꺼운 장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포기'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봉인되려는 시점에

댄서 아이키가 경종을 울렸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그는 아내이고 엄마이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 결과 대한민국 대표 댄서 중 한 명이 됐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삶이다. 아이키를 보며 깨달았다.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그와 내겐 주어진 환경이 다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 누군가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자국이 됐다.

아이키처럼 내게도 꿈꿀 수 있는 설렘이 필요했다. 더 이상 엄마로만 남고 싶지는 않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변하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변화는 나를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록 지금은 여러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될 일이다. 작은 물결이 큰 물결을 만들어 내듯 내 작은 변화와 노력은 이후의 나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테니.

남편과 아이와 가정을 돌보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주 잘 하지는 않아도 할 줄 아는 것.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성취도 얻을 수 있는 것. 고민하다 찾은 답은 '글쓰기'다. 과거 작은 신문사와 잡지사 등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아주 맛깔스럽지는 않더라도 매끄럽게 다듬을 줄은 아니까. 방향을 잡았더니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 SNS에 글을 쓰기로 한 것인데 글이 쌓일수록 점점 활기를 찾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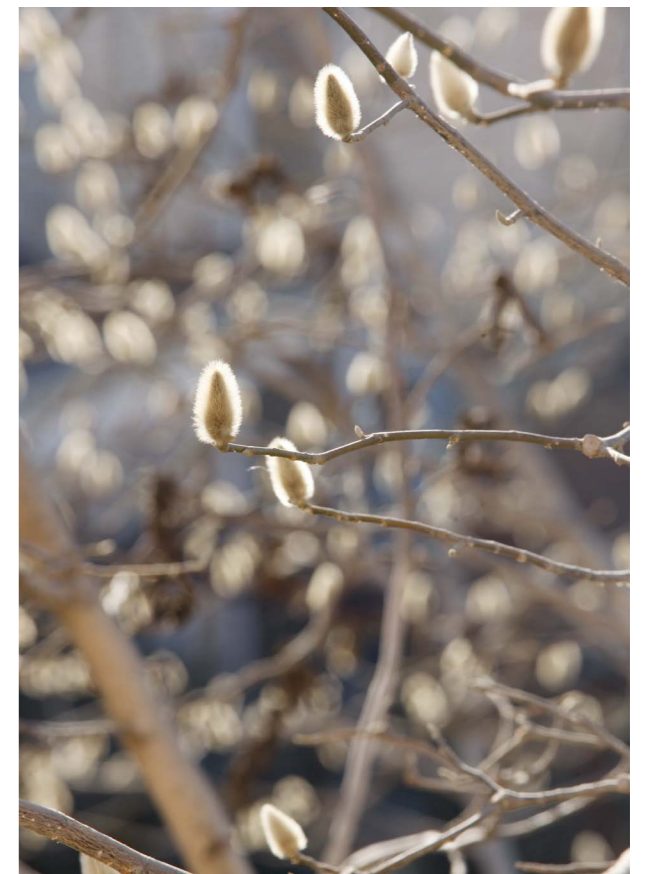
관내 백일장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학창 시절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상에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설렘.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할 이유가 생겼다.

주위에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인들이 있다. 사십대 중반에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 활동 중인 사람도, 뒤늦게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꼭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을 보면 나는 그동안 핑계로 일관하며 한자리에 머물기를 자처했던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된다.

후회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내 목표는 '뭐라도 하자. 일단 시작이라도 하자'이다. SNS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기로 스스로와 약속했고, 운동도 할 계획이다. 나를 포기하지도, 희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찍이 가정을 건사하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마흔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불혹이었을지 몰라도 현대의 마흔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하는 나이다. '감회(憾悔, 한탄하고 뉘우침)', '변모(變貌,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정도가 맞지 않을까.

어디선가 본 '마흔은 두 번째 스무 살'이라는 말에 가슴이 뒹군다. 선물 같은 두 번째 스무 살을 감사히 받으며 앞으로 더 빛날 날들을 그려본다. 내 인생의 선봉장이 되어 신나는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다.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공동대표

Save People and Save Nature.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입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8년 창업 이후 'BREATH KEEPER'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실내 벽면녹화와 플랜테리어 사업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고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브라더스키퍼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람과 관계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한 해에 약 2000명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은 여러 통계에서 나오듯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살, 갑자기 세상에 나와 겪게 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린 시절 시설에서 지내며 단체생활을 통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어떻게 내는지, 은행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매 순간을 맞이합니다. 보통의 20살이 겪는 설렘 가득한 홀로서기가 아니라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홀로서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50%로 집계됨)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나에 대해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될까? 조금 다르게 자라 온 환경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소극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서 자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메인 사업인 플랜테리어 사업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식물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식물을 돌보며 각자의 상처를 회복해가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일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사회로 나아가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과 힘을 기르는 것이 브라더스키퍼가 안전한 울타리로 역할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브라더스키퍼는 플랜테리어 사업 뿐만아니라 그간 당사자로서 꾸준히 자립준비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립수당을 만든 것,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로 늘린 것, 사회적기업에서 인정받는 취약계층 분류에 자립준비 청년이 들어가도록 한 것 등 여러 정책 변화들에 일조했고, 새로운 여젠다를 사회에 던지며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보호아동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립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립 이전의 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사회에서 어우러져 사는데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전히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친구들의 40~50% 이유는 '학대'입니다.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치로 현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30~40%가 경계선 지능이거나 ADHD를 판정받아 보호와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로나 정서적 케어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브라더스키퍼의 미션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이기에 그것의 근간인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스타트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진정한 20살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의 20살은 보호받던 부모의 품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떠나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일 텐데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그 '준비'가 없이 바로 어른이 되어버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어 맞이하는 세상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버겁기에 여

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함께할 때 진정으로 각자 잘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살은 홀로서기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함께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것을 위한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사소한 무관심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은 조금 다른 경험이 사회에서 편견과 낙인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2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라고 말하기 보다, "내가 알려줄게. 같이 해볼까?"라고 다가가는 친구와 동료, 그리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브라더스, 키퍼 합니다.



아이들과 만난 지 141일째

김철원 이우학교 교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에 관해 쓰고 있었다. 아이는 왼팔로 종이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글을 쓰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하얀색 마스크와 안경 너머 아이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기억이 안 나요.” 아이의 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아서 나는 귀를 아이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아이는 점점 더 작게 말했다. “슬픈 것만 기억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의 검은색 패딩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주었다. 어느 때 같았으면 떠오르는 슬픔을 그냥 적어보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의 글쓰기는 주제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떠오르는 것들을 잘 붙잡아 종이 위에 옮겨 주는 시간이니깐 그래도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을 적어보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슬픔이 너무 많고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아이가 그 시간에 쓴 글을 나중에 읽을 수 있었다. 아이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을 ‘아빠가 맨날 오토바이 태워서 초등학교에 데려다준 거’라고 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도 썼다. 엄마랑 아빠랑 자기 생일 때 밖에서 칼국수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가족다 같이 처음으로 먹은 날이자 마지막이라’ 기억에 남는다고도 썼다.

머칠이 지나고 복도에서 아이와 마주쳤다. 나는 아이의 글을 읽었다고 말하며 내가 가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무 미사여구 없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써주어서 글이 너무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글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용기 내는 일이기도 하다. 순정하고 투명하게 얇지만 깊은 내면의 피부를 꺼내어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글은 때로 아프기도 하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무슨 글을 잘 쓰냐고, 내 글이 무슨 좋은 글이냐고 말하듯이 아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나는 웃으며 “글쓰기 선생님이 글이 좋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해” 라고 말했다.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자기가 싫고, 갈수록 모르게 부정적으로만 보인다고 썼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녀리고 희미한 빛을 세상 밖으로 꺼내 간신히 보여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 작고 작은 아이의 빛을 나는 내내 생각하고 있다.

이 아이들과 만난 지 오늘로 141일 되었다. 급식실 앞 벚꽃 나무보다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고 쓰인 2층과 3층 사이 계단의 문장보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과 함께 앉은 책상과 의자보다 학교 담장의 붉은 장미꽃과 체육관의 마루 바닥보다 운동장에 내려앉은 아침의 안개와 저녁의 노을보다 나는 아이들을 늦게 만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아 끝내 울어버린 아이의 마음과 그때 아이의 글썽이던 눈동자를 알고 있고, 학원에 갈 수 없어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아이와 아빠와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는 아이를 알고 있다. 일 때문에 바쁘셔서 2주 만에 집에 온 엄마, 학교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들리던 엄마의 청소기 소리, 제일 좋



사진출처 : 케티이미지

아하던 엄마의 뒷장찌개 냄새. 아이가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엄마를 알고 있다. 그것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는 그와 그걸 말할 때 환해지는 그의 얼굴도 알고 있다.

친구가 만들어 주었던 맛있는 파스타와 사주었던 탕후루를 알고 있고, 슬픈 날 복도에서 안아주던 친구들의 따뜻한 포옹과 교과서 가득 필기 되어 있던 정직하고 성실한 글자들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시가 뜻대로 되지 않아 기운이 없던 아이의 어깨와 발걸음, 또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씩씩한 달리기도 기억하고 있다.

하여, 나는 겨울의 졸업식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얼마나 오래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냈는지 저는 감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완벽해야 하거나 무엇이든 하나쯤은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치면서, 세상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관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일은 언제나 반드시 자신을 닮아있습니다. 나 아닌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믿고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영망진창이라고 말할 때마다 씩씩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나의 상처와 슬픔과 내가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오직 나의 삶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때로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주지만 삶은 또한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면서 또 여러 번 나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 당신의 인생에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을 겁니다.”

서해 바다가 가까운 이 작은 학교의 벚꽃 나무는 꽃잎이 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꽃이 진 자리에는 이제 더없이 높고 광활한 푸른 하늘이 보인다. 텅 빈 나무는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안다. 봄이 오면 또 하얀 벚꽃이 거짓말처럼 다시 피어나고 또 진다는 것을. 삶은 불확실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고통은 계속되지만 언제나 우리는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품에 끌어안고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아주 가녀리고 작고 희미한 빛 가까이. 희망이 거기에 있고 사랑도 거기에 있다.

바르게 자란다는 것

최보라 열국아이학교 교사



인성프로그램 Becoming '컬러풀한 우리' 활동 모습

피난처 열국아이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인성교육 신규 강사 양성 워크숍을 수료하고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인성교육으로 아이들과 만난 것입니다. 전문성도 없이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현장에 뛰어들어 저에게 인성교육이라는 도구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가는 데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인성교육을 하며 지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들은 이해력, 집중력, 손재주, 자신감, 의지 등 모든 면에서 모두가 달랐습니다. 돌아보면 인성교육을 5개월가량 진행한 시점이었던 2023년 초만 해도 일부 아이들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입 부분에서 신나게 참여하다가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활동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옆에서 보조교사가 아무리 격려해도 슬픈 눈을 하고 입을 삐죽 내밀고는 재료를 물끄러미 바라보지만 했

니다. 반면 또 어떤 아이는 주어진 시간이 끝났음에도 손에서 색연필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종료 5분 전, 3분 전에 미리 알려주어도 매번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재료를 더 움켜쥐었습니다. 협동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면 한쪽에서는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괴로워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가 시켜주지만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또 매거진이냐'며 불멘소리를 할 만큼 인성교육 회차가 지났을 즈음, 아이들은 각기 적응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친구와 매거진을 살펴보게 되었고, 색연필을 놓지 못하던 아이는 짜증 대신 '잠깐만요, 이것만요!'를 외치며 다소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하던 것을 정리하고 친구의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도권을 쥐던 아이는 친구의 생각을 묻게 되었고, 우두커니 서 있던 아이는 '내가 테이프를 붙일게!'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성프로그램 Being '미래야 기다려' 활동 모습



인성프로그램 Blending '전통 탈을 만들어요' 활동 모습

저는 '네 생각은 어때?'를 다 커서 배운 어른인 탓에 그런 질문을 가르치는 것이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그들만의 순수함으로 저의 부족한 가르침에 온전히 반응하며 의견을 모아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모양은 달랐지만 인성교육의 모든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 없이 주었고, 그러한 다른 모양 속에서 아이들은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자라겠지만 신뢰관계에 있는 어른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제시해 줄 때 아이들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통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앉혀놓고 말로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강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아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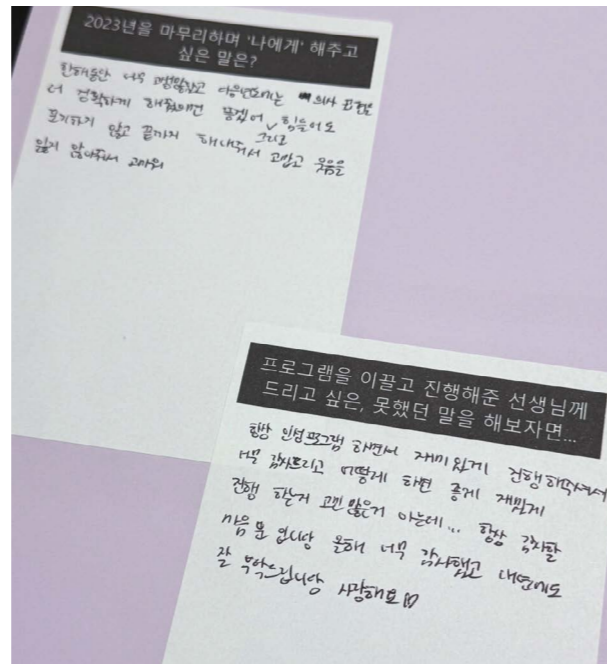
정선호 솔빛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위스타트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지도 벌써 7년이 되었다.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발견하게 되는 일은 언제나 설레고, 지친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이들의 변화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세상 앞에 움츠러들고 도망가게 하는 변화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겪는 변화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의 변화보다는 각각의 개별 형질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합쳐지고 나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성이 달라지는 질적 변화로 보기에 더 적당하다.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졌고,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룩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할 겸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대상이 바뀌기보다는 대상의 연령이 변화했던 솔빛의 인성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란 어떠한 영향력과 내면의 힘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인성교육을 준비하며 늘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인성이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감에 있어 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자인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의 뜻이 잊힐 때면 종종 검색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는 한다. 인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으로 개인과 그의 환경 간에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외적 통제 간의 화해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나는, 인성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인식한 자아가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양식이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감정이나 사고를 적절히 통제하고 정제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다시 만나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만의 사고하는 독특한 방식이 초등학생 때보다는 더 면밀히 형성되어 있었다.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고민과 생각을 통해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의 자아가 어느새 훌쩍 자라 사회활동 속에서 온전히 정립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전달이 좀 더 될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과 의견이 대립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개성과 기호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각자의 호불호가 생겨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나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주장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의사와 의견대로 행동하면 수업하며 힘도 빠지고 진짜 막막하며 어떨 때는 화도 나는데 집에 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나름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인성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떠올려본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하고, 마음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의 가치를 안다. 또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며 자신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때론 자신의 의견대로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또 이내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하고 비록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아이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일어난 변화는 어려운 일을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감정 변화가 감소되었으며, 이해심이 많고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는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존감은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넘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어준다. 또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내재된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실수와 잘못,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나를 단단하게 세워준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비난 받는 것이 무서워 쉬쉬하고 비밀에만 붙여두지 않는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용서와 이해를 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다.



인성프로그램 Being '감정 가면을 쓰고' 활동 모습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전통문화와 예절에 관심이 많으며, 고맙다, 미안하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말도 잘 건네는 공손하고 정중한 아이들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꺾꾹 누르며 화를 참기도 하고, 또 내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가끔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폭발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립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인성 프로그램은 “그럼에도 괜찮아” 하고 말해준다. 실수해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무수히 겪어내고 인내해 내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괜찮아?” 하고 물어봐 준다. 그동안 토해내지 못한 감정들을 꺼내놓을 때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들에게 인성프로그램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인성프로그램은 오늘날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다시 일어하게 하고, 또 나아가게 하는 힘을 길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자 아이들의 생각과 시간을 기록하고 공

감하는 시간이 된다. 기록하고 공감하며 때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또 상처받아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가야 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된다면, 이 글을 통해 아이들이 주장사의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강사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성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단순 교육으로서의 영역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와 덕목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환경들을 철저히 고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오랜 기간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인성교육이 절실 하구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보다 더 유명한 대전 빵집, 성심당

손민호 중앙일보 레저팀장

2023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대전의 한 빵집 주변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 집 케이크를 사겠다고 늘어선 줄 때문이었다. 빵집에서 시작한 줄은 빵집을 예운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 한참을 돌고 돌아왔다. 이 줄은 12월 25일까지 사흘 내내 끊이지 않았다.

이 화제의 빵집은 성심당이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빵을 만드는 동네 빵집의 지존. 대전역에서 기차를 놓치는 승객의 팔 할이 성심당 튀김소보로 사러다 늦은 사람이고, 성심당 빵을 사서 다른 지역에 갖다주는 구매 대행업마저 성행한다는 전설의 빵집. 대전광역시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전을 방문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성심당이고, 대전에서 꼭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성심당 빵이고,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 1위도 성심당이라고 한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간단하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대전 안에서만 빵을 팔다 보니 이 사달이 나고 있다. 군산 이성당, 대구 삼송 빵집, 부산 옴스 베이커리 같은 지방의 명물 빵집 대부분이 전국 곳곳에 매장을 두고 있지만, 성심당은 대전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매장 4개를 운영한다. 이 4개 매장에서 하루 평균 10만 개의 빵을 만든다. 직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900명이 넘고, 2023년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제외하면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빵집은 성심당이 유일하다. 성심당은 '대전의 성심당'을 '성심당의 대전'으로 바꿔 버린, 대전보다 더 유명한 대전 빵집이다.

성심당은 선행과 미담으로도 유명하다. 창업주 임길순(1911-1997) 씨는 피난민 이었다. 흉남철수 때 피난 내려와 대전에서 터를 잡았다. 먹고살기 막막했던 시절, 대전역 앞 대흥동 성당에서 받은 밀가루 두 포대로 쪄빵을 만들어 판 게 성심당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성심당은 팔고 남은 빵을 나눠줬다. 그 전통이 대를 이어 내려온다. 성심당 2대 대표 임영진 씨는 "요즘에는 한 달에 3000만 원어치의 빵을 불우이웃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심당 하면 떠오르는 빵이 있다. 튀김소보로다. 성심당 마니아는 줄여서 '튀소'라고 부른다. 튀소는 성심당이 고심 끝에 개발한 메뉴다. 하여 생일이 있다. 1980년 5월 20일. 그 시절 성심당에서 가장 잘 나간 세 종류의 빵, 단팥빵과 소보로와 도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빵을 목표로 만들어냈다. 정말로 튀소에는 팔 양금의 달콤한 맛과 소보로의 고소한 맛, 도넛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모두 들어 있다. 성심당은 2011년 튀소 제작 방식 일체에 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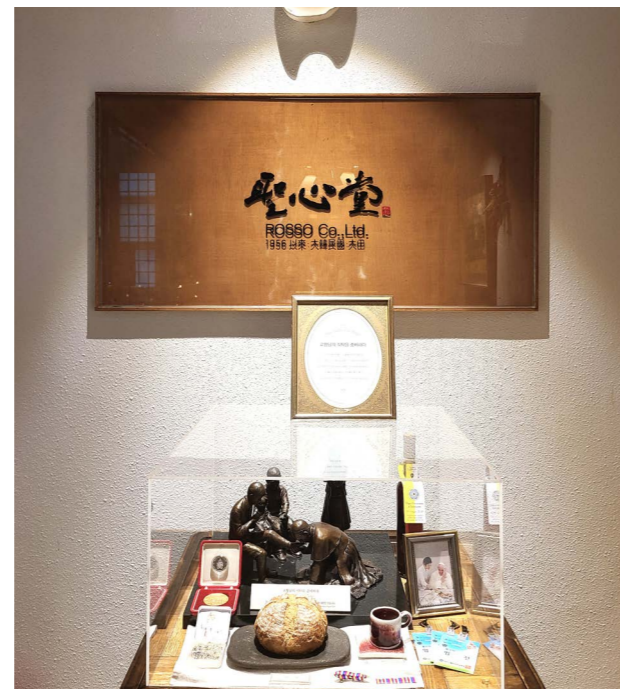
튀소가 소문만큼 맛이 없다는 후기가 의외로 많다. 그건 100% 당시 잘못이다. 너무 늦게 먹었기 때문이다. 단팥 양금으로 속을 채운 소보로를 도넛처럼 튀겨낸 빵이 튀김소보로다. 식어서 녹녹해진 도넛처럼 맛있는 빵도

없다. 성심당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7시간 안에 드시라고. 정히 어려우면 프라이팬에서 살짝 구워 먹으라고. 튀소는 아직 따뜻할 때 우유와 함께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다시 말해 대전에서 먹을 때 제일 맛있다.

사람들은 왜 성심당 빵에 열광할까. 성심당의 선행 때문일까. 하나 성심당만의 미담이 폭발적인 인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착한 빵집과 장사 잘 되는 빵집이 같은 집은 아니어서이다. 한바탕 유행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1956년 창업한 노포에 유행 운운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성심당은 싸다. 그것도 아주 많이 싸다. 싸다는 말에는 싸구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쓰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보자. 2023년 연말 소동을 일으켰던 성심당 딸기시루 케이크의 가격이 4만 3000원이었다. 딸기와 초콜릿 시트가 시루떡처럼 층층이 쌓여 무게가 2.3kg이나 나가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특급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반값도 안 됐다. 그러니 그 난리가 일어났던 게다.

성심당 덕분에 대전 원도심 상권이 되살아났다. 실제로 성심당 거리의 상가 공실률이 서울 명동보다도 낮다고 한다. 대전시는 성심당을 앞세워 전국 유일의 빵 축제를 열고 있다. 성심당은 빵집 너머의 빵집이다.



성심당(聖心堂)은 독실한 가톨릭 기업이다.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의 이름부터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다. 성심당은 2014년 방한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8월 15일 아침 빵을 만든 빵집이다. 사진은 성심당에서 재현한 교황 아침상.

사진출처: 성심당, 손민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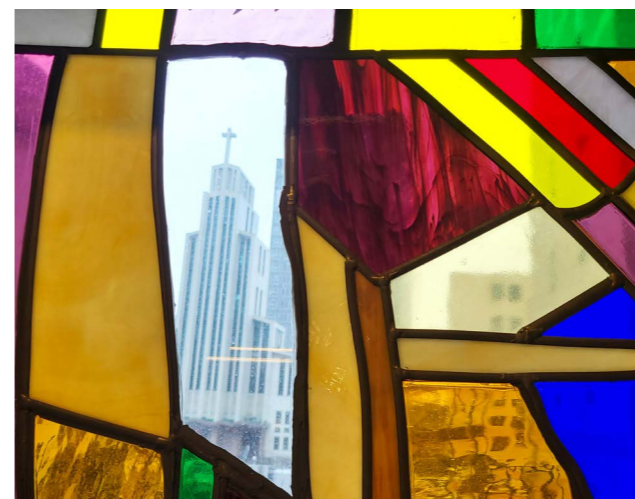
갓 구운 성심당 단팥빵.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다. 대전에만 매장이 4개 있다.



대전시 원도심에 있는 성심당 베이커리. 사진 오른쪽을 따라 성심당 거리가 이어진다.



성심당 문화원에서 촬영한 대흥동 성당.



1967년 촬영한 옛 성심당의 모습.



WE START 캠페인기 선배교 손해교 도보러며 기부물린지 정말 짐하다 짐해... 어메이징!!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연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

농장터 2021 Flea Market

유리브러쉬 어린이 지원 기부금 전달 52,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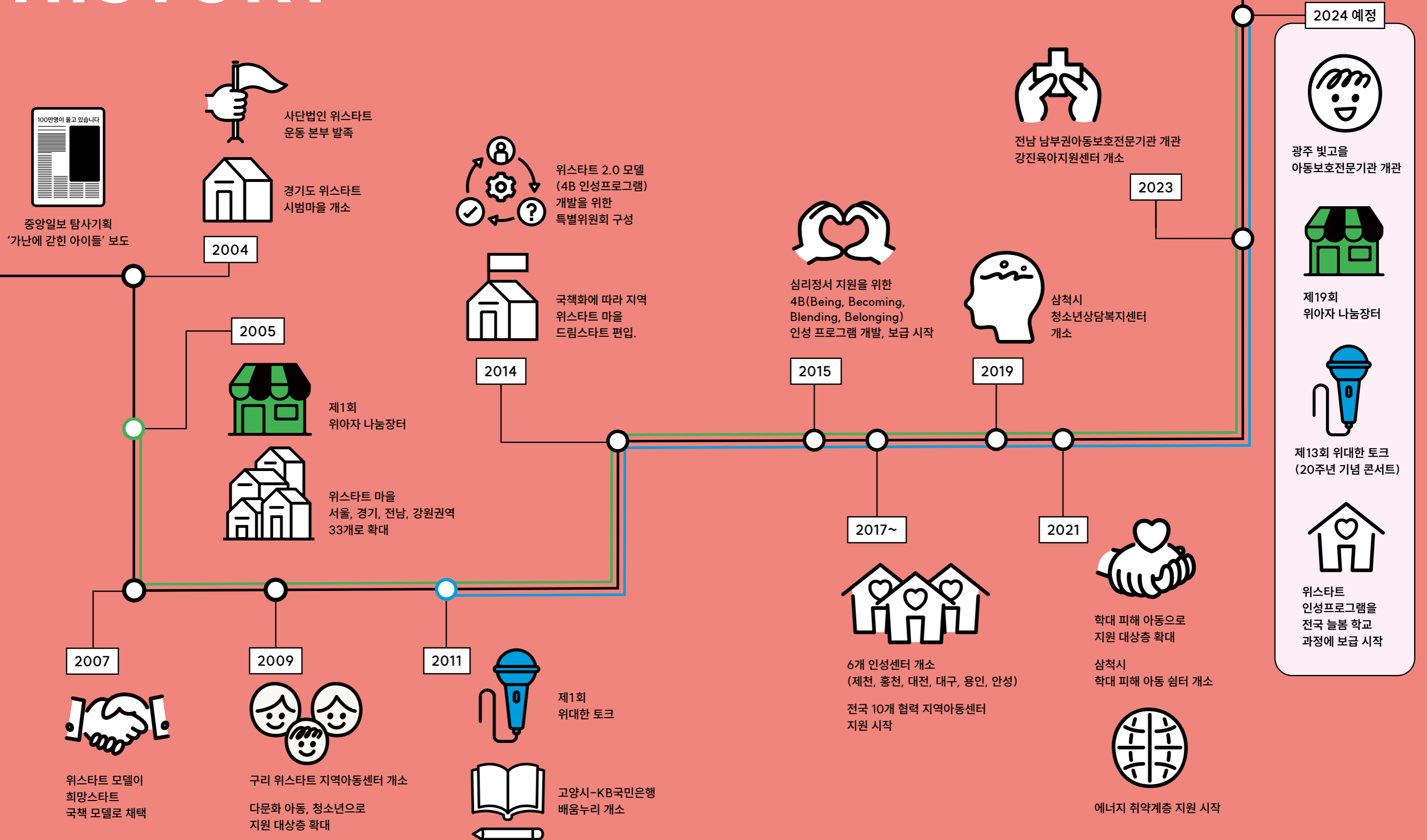
STRING ART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유리브러쉬

HISTORY



한눈에 보는 위스타트

(2004년~2013년 누적 수치)

국내 총 지원아동 수

219,764 명



국내아동
통합지원

94,630 명



인성교육
지원

118,139 명



제대로 된
한끼 지원

6,995 명

총 후원자 수

156,844 명



총 자원봉사자 수

8,386 명



총 기부액

26,186,438,360 원



거울아, 뭐가 보이니

김수길 회장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아마도 인공 지능의 시초라 할 만한 장면이겠는데, 요즘 실제 인공 지능은 이런 동화 세계에서처럼 마냥 재미있지 않습니다.
지능아 지능아,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지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니. 즉각 여러 직업을 나열할 텐데, 거기에 기자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20년 전만 해도 기자들이 보람만으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요. 2004년 3월 중앙일보가 탐사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신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회야 사회야,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3.12.)로 온 나라가 뜨거워 있던 와중에 중앙일보가 던진 이 질문(2004.3.21.)은 웬만한 정치를 훨씬 훌쩍 뛰어넘더니 '위스타트' 운동으로 스스로 진화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걸 지역 사회 네트워크로 촘촘히 짜서 구현하는 위스타트 마을이 32곳까지 불어났습니다. 한 언론의 이니셔티브를 넘어 공공 자산을 축적하는 공굴리기를 시작한 거지요. 여기서 그만 정부가 나서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위스타트' 복제 정부 버전 '희망스타트'가 시작해 이 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드림스타트'로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위스타트' 만큼은 NGO 활동으로 지속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어떻든, '위스타트' 마을이 대부분 '드림스타트'로 넘어간 2014년에 '위스타트'는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트야 스타트야,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니. 답은 '인성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해안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도 '위스타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스타트' 집행 예산을 지역별 기관별 아닌 콘텐츠 별로 나누어 보면 인성 교육이 절반을 넘어갑니다. 삼척 강진 해남 구리 고양 등 지역 별로 실제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인성 교육 관련입니다.
'빈곤'에서 '인성'으로- 탁월한 좌표축 확장 이동이었습니다. 핸드폰 시대에 이미 가난보다 더 끔찍한 고립과 황폐가 닥치고 있으니까요.

시야 시야, '위스타트'가 더 좋은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니. 굳이 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구도가 자꾸 그려집니다.

인공 : 인성
지능 : 교육

'위스타트'가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20년 전에 통합사례관리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인성 교육에 본격 나서려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스타트 TV
바로가기





Q&A



1

위스타트의 뜻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WE) 모두가 나서서 아이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라는 뜻입니다. ‘WE’에는 Welfare(복지)와 Education(교육) 두 가지 뜻도 담겨 있어요.

2

위스타트의 시작은 언제였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04년 3월, 중앙일보는 <탐사기획-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연재하며 당시 전체 아동의 약 8.5%,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빈곤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국내 빈곤아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짐과 동시에 이전까지의 일시적이며 시혜적인 복지 서비스의 부족함을 보완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중앙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등 언론사 및 5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뜻을 모아 2004년 5월 3일 ‘위스타트 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3

위스타트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위스타트의 미션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입니다. 위스타트가 바라는 세상(비전)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고요!

4

위스타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위스타트는 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위스타트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지원**,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지원**,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활동과 의료 서비스 등 **건강 지원**,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이 있어요. 각각의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위스타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5

위스타트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스타트가 처음 출범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다양한 복지제도가 생기고, 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처럼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힘든 새로운 이슈들도 생겨나고 있어 구석구석 위스타트가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근본적인 자립능력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강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체계화된 목표와 참여형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위스타트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6

내가 생각하는 위스타트의 장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 정부나 특정 기업·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했기에 언론사부터 각 분야 전문가, 복지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국내 최초로 ‘통합사례관리 모델’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아동·청소년에게 집중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위스타트를 통해 모인 모든 후원금은 ‘국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위스타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7

20년 동안 활동하며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정한 출발선이란 무엇인지, 아동과 가장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너무도 크고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로 제도권 안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틀이 되었고 이는 20년 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합니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과 그 성장 모습을 옆에서 함께 하고 보는 즐거움, 위스타트에서 일하며 에너지와 열정을 충전 받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쌓이는 고마움 감사 진실한 마음들♥

8

20주년이 된 위스타트, 앞으로의 제일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위스타트는 설립 당시, 통합사례관리모델 개발 및 전파가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마음에 힘을 키우는 ‘인성’을 새로운 미션으로 세웠습니다. 1+1을 이뤘다고 있으니. 1+1=2가 아닌 10이 필요합니다. 통합사례관리모델과 인성프로그램이 결합된 새로운 위스타트 모델을 전파하는 “위스타트센터”를 설립하고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9

지금의 위스타트를 위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궁금해요!

우선 수많은 기부자들이 첫 번째고요. 특히 기부보험에 처음 가입해 주신 한준희님과 설립부터 20년 동안 계속 정기기부를 해오신 최훈, 정효식, 신성식님 등 67분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법인 사무국을 지키고 있거나 거처간 많은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그 외 창립에 발 벗고 나서주신 김수길, 이규연, 김석산님이 계시고 모델 설립에 기여해 주신 학계의 허남순, 이봉주, 양수, 김명순, 정익중, 김상곤님도 계십니다. 사진으로 올림을 주신 박종근님도 기억나네요. 위스타트 자리매김에 기여해 주신 류영호, 김석현, 노유진님. 또 위스타트가 꾸준히 성장하도록 힘써주신 송필호, 이창호, 김일, 신동재님도 계십니다. 설립 초기부터 위스타트 마을을 일궈주신 정신정, 김에스터, 김정희, 김명숙, 이종숙, 이은하, 김재원, 이은희, 김동규, 김정화, 박보민, 전미선님 외 수많은 위스타트마을 관장님들과 선생님들도 소중합니다. 홍보대사를 맡아서 힘을 실어주시는 헤민스님, 이연복, 엄홍길, 바다, 적우, 백종원님도 기억하고 싶어요.

10

가장 반응이 좋았던 캠페인은?

결식 아동 후원 캠페인 ‘제대로 된 한 끼’가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 그래서인지 2017년부터 이어온 위스타트의 ‘제대로 된 한 끼’ 캠페인은 꾸준히 많은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스타트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즐거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용기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별산타’는 후원자분들께서 가장 즐겨워하는 캠페인입니다. 아이들의 소원카드를 받아 직접 선물을 포장하고, 산타가 되어 카드를 써서 보냅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참여한 사람은 없다는 별별산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꼭 오셔서 함께 해요!

11

감동했던 순간이 있나요?

법원에서 산하 기관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해 주셨던 ‘제주도 워크숍’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의 일몰과 여러 산하기관 선생님들과 기관마다의 고민을 나누며 힐링했던 시간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었습니다.

손 편지가 귀해진 요즘 손수 편지를 적거나 직접 선생님들의 얼굴을 그려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또 대학생이 되었거나 취업한 청소년들이 센터에 찾아와서 함께 추억을 나누며 웃을 수 있을 때, 나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 속에 응원을 받아 어느덧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두웠던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그 순간 혹은 그 아이의 언어 표현이 싫어요 에서 좋아요로 바뀌는 순간, 약속을 싫어하고 안하고 못 지키던 아이가 성실한 태도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순간, 아무말도 안 하고 표현 없던 그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순간순간이 감동입니다.

12

위스타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아동 발달의 중요한 특성에는 가소성, 불가역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 무한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이 시기에 놓친 발달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스타트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에 물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듯,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

위스타트의 MBTI는 무엇인지 상상해본다면?

- **ESFJ(사교적인 외교관):** 전국구로 활동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후원자들과도 친하게 어울리고 지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긍정과 감정 만땅의 아이콘.
- **ENFJ(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온화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또한 이타적이며 민첩하고 사람 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유형입니다. 위스타트만의 MBTI, WEFJ는 어떨까요?

14

위스타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는?

- **회복탄력성(Resilience)**: 회복탄력성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뜻하는데요. 위스타트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고, 또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 **'조명 :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봄'**: 처음 탐사보도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과 출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그 마음을 20년 동안 울곧이 지켜 온 위스타트! 아이들의 행복을 조명해온 위스타트가 변화한 지금 사회의 중요한 문제도 새롭게 조명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5

요즘 위스타트의 고민은?

위스타트가 걸어온 20년과 앞으로 걸어야 할 20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방향과 목적만 분명하다면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위스타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6

내가 후원자라면, 위스타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위스타트에 가장 필요한 후원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17

10년 후, 위스타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20년까지는 국책화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등의 내실화를 해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위스타트의 분야를 확장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위스타트의 사업에 공감하고 응원해 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10년 후에는 아이들은 더욱 없고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담과 역할도 가중되는 시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출발선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를 위한 응원과 세대통합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18

위스타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 **아이들**: 위스타트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힘이 되는 존재! 아이들이 보여주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위스타트가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환하게 웃어주는 미소, 수줍게 내미는 쪽지 같은 작은 행복들이 위스타트를 버티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가 대학생, 직장인이 되어 다시 위스타트를 찾아와 동생들, 후배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 **후원자님**: 후원을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 아이들의 상황에 관심 갖고 나의 일처럼 마음 써주시는 후원자님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변화는 절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음을 느껴요.
-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때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재 각각의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19

내가 위스타트를 꾸준히 다니는 이유는?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진로 고민 등 그 시절의 치열한 고민과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위스타트는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길과 고민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기에 앞으로도 위스타트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20살이 된 위스타트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스타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모두가 아이들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성인이 된 위스타트! 더 성숙하고 풍성한 위스타트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위스타트를 축하합니다! 20대의 활기와 열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된 위스타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눈부신 활약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위스타트만의 색깔로 아이들에게 진심이 닿는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WE START 2023 사업현황

국내 총 지원 아동수

9,160명

국내아동 통합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복지, 교육, 건강 3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가족-지역사회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현황	538명
지원 사업 현황	사례관리, 학습지원, 파랑새 봉사단 운영 등
주요 캠페인 현황	냉난방용품지원, 명절 및 기념일 선물 지원

인성교육 지원 경제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개인의 인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인성교육 참여 아동	596명
금융 인성교육 참여 아동	6,338명

일대일사례 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1:1 사례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필요한 물품과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모금된 후원금은 대상 아동과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모금된 금액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가정	9가정 / 29명
-------	-----------

* 지원 인원에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수 포함

제대로된 한 끼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균형 잡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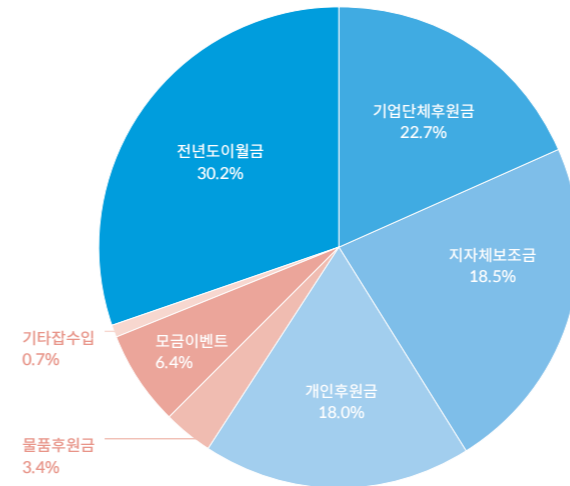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급식뿐만 아니라 가정 내 식료품 배송 등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아동	1,659명 / 36,795끼
-------	------------------

WE START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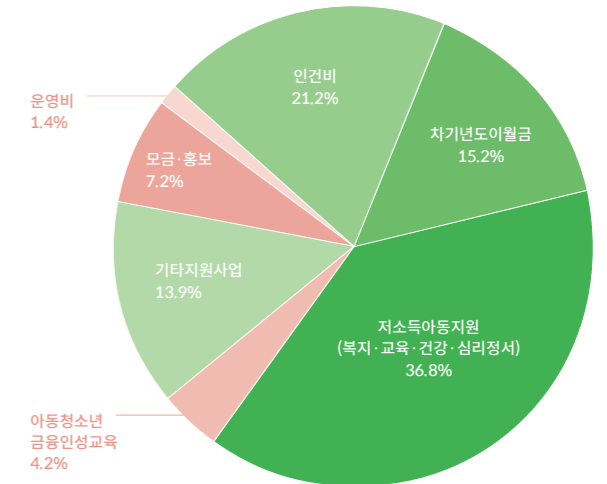
2023년 위스타트는 후원자님들과 함께 경제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16개의 기관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 수입



구분	금액(원)	비율(%)
자자체보조금	608,571,000	18.5
기업단체후원금	745,881,743	22.7
개인후원금	592,340,331	18.0
물품후원금	111,581,287	3.4
모금이벤트	210,637,498	6.4
기타잡수입	22,070,281	0.7
전년도이월금	992,054,753	30.2
합계	3,283,136,893	100

2023 지출



구분	금액(원)	비율(%)
저소득아동지원(복지·교육·건강·심리정서)	1,209,662,863	36.8
아동청소년금융인성교육	138,732,296	4.2
기타지원사업	455,610,107	13.9
모금·홍보	235,365,945	7.2
인건비	696,917,880	21.2
운영비	46,915,203	1.4
차기년도이월금	499,932,599	15.2
합계	3,283,136,893	100

위스타트 뉴스NEWS

1월

행복한 강원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기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미술 및 놀이치료를 통하여 형성된 안정감과 상호작용 등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호자 대상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혹은 기타 지원사업은 치료 외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킨다.



방학 특강 라인댄스교실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신체 활동 기회가 적은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댄스 교실을 운영하였다.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 연계(수택2동 자치센터)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배움이 넘치는 배움누리 학습지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중3~고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수학, 국어 과목을 주 2회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BGF복지재단 설 선물 후원 캠페인

위스타트

'설 선물세트 후원 캠페인'은 고객이 특정 선물세트를 구매시 받게 되는 '+1' 상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BGF리테일이 동일한 수량을 후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이다. 참여 고객과 BGF리테일이 제공한 설 선물세트는 위스타트 3개 기관을 통해 32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프리메드 보건교육

열국아이학교

모두가 차별없이 건강할 권리를 외치는 청년 NGO, '프리메드'의 활동가들이 격주로 열국아이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주제의 인성/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즐거운 활동과 함께 지식을 함양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2월

아이들 눈놀이터 체험학습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센터의 초등 아동들은 2월 방학을 맞아 눈놀이터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며 다양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였으며,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다.



1박2일 보드캠프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겨울방학을 맞아 문화체험의 활동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과 함께 강원도 흥천 비발디파크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 스노보드 강습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청소년 자치회의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학년별 청소년 정기자치회의를 통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배움누리센터와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진도군 사회복지협의회 MOU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진도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지역 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건강한 발달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MBTI 진로교육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재난관리공학과, 소방방재학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MBTI 성격검사에 따른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성격유형을 자세히 파악하여 진로탐색역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여자라면? 남자라면?

연양서부지역아동센터

반대인 성별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가진 성별의 장점, 반대의 성별을 가졌을 때 하고 싶은 일 등을 생각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성별을 구분 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기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3월

학습 코칭 및 연세대 대학탐방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배움누리의 맞춤형 특화사업인 '학습코칭 및 대학탐방'은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의 방향을 찾아가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코칭 프로그램이다. 연세대학교 탐방을 통해 재학생 멘토가 들려주는 입시정보와 학습법 코칭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역사 보드교실 수업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초등 고학년 대상 주 1회 역사 보드교실을 진행하였다(3월부터 매주 1회 1시간). 역사 관련 보드게임을 통해, 참여 아동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노화읍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완도군 소재 노화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노화읍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및 관계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행복한 부모가 되었다고 다짐하며 노화읍을 한뼘 더 성장하게 했던 시간이었다.



노화읍 주민자치위원회 MOU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완도군 노화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였으며,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동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보호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핑퐁핑퐁 오감발달 프로그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생후 5개월에서 7세 이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오감발달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으로 구성된 5개반)을 운영하였다. 매회 프로그램 시 새로운 재료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 아동 및 부모님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현장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1단계), 자립동기부여(2단계), 기초기술훈련(3단계), 직장체험(4단계)에 참여하였다. 4명의 청소년이 조소공예 30시간 수료 및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그중 3명이 인턴십 과정을 마쳐 직업체험비를 지원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계중학교의 새 학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146명의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방어자의 역할이 어렵지 않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4월

장학생 학부모 간담회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역사회 및 외부 지원 장학금을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후원처 9곳과 연계하여, 약 24명의 청소년에게 월 정기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사용 안내와 Q&A 시간을 가졌다.



연초록빛 봄꽃을 심어봐요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연초록빛 공기정화식물 '황금스킨'을 화분에 식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 우리 가족 건강은 제가 지켜요"라며 정성을 다하는 돌봄 친구들의 모습에서 가족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꿈드림 스마트교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취득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기초 학습과 교재,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였다. 9명 청소년이 합격하였으며, 그중 만점자 1명이 나왔다.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 취득에 따라 2명이 대학교에 합격하여 2024년 입학하였다.



신나는 피구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4월, 아이들과 함께 피구체육 수업을 진행했다. 간편한 옷차림과 경쾌한 발걸음으로 토평공원에 모여 새로 만나는 체육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몸을 풀며 피구 규칙들을 배웠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문 속 우정찾기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큰 도화지로 모두가 함께 하는 모듬 활동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맡은 일과 역할에서의 책임감과 협동을 배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해 봄으로써 타인의 말 경청, 소통 능력 향상, 상황의 적합한 예의와 예절, 신뢰의 대인관계 형성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진도군 장애인복지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진도군장애인복지관 복지사 및 종사자 1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아동 인권과 아동학대 최근 사례 등을 설명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다.



작은 도서관 오픈

연양서부지역아동센터

연양서부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3층)을 마련하였다. 책을 읽는 공간이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사진을 찍거나 발표 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성프로그램 감사워크숍

위스타트

1박2일 위스타트 인성프로그램 감사워크숍을 진행했다. 산하기관 및 협력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5명의 강사들이 참여하였다. 실제 수업자료와 매뉴얼이 제공되어 전체 프로그램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외 대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안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수요일 음악 활동

열국아이학교

매주 수요일, 전문 음악치료사님과 함께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고, 합창을 하기도 하며, 율동을 배우거나,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을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다. 지난 4월, 녹사평역 힐링 음악회에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만나고 싶어요! 소방관 아저씨!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동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차, 소방용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터뷰 영상은 위스타트 유튜브 및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 & 열정 자원봉사자

구리시 어린이날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마술공연 관람 및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체험 마당에서 추억의 과자 뽑기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센터 아동뿐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축구선수 이우혁 후원

위스타트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도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꿈 때문이 아닐까. 어린이, 청소년을 후원하는 일이 꿈에 꿈을 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는 이우혁 선수의 후원으로 진규와 같은 아이들이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매뉴얼 개발 토론회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상담원과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정내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결정된 매뉴얼에 대해선 직접 대상자와 상담원이 되어 시연하는 등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가정의 달 선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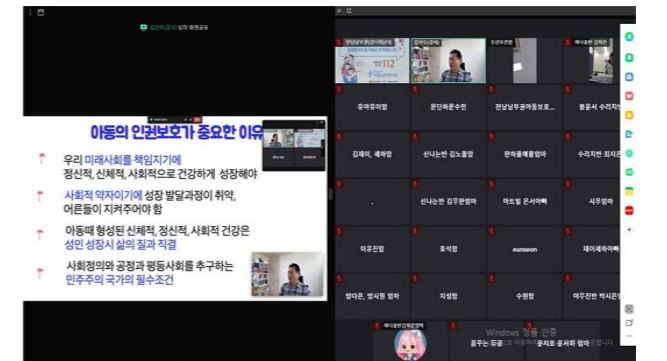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일상생활 용품을 지원하였다. 가정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였으며, 침구류, 문구류 등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위주로 지원하였다.



어린이집 비대면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트빌 어린이집 학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가정 내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통계수치를 통해서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날 소원선물 행사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소원 편지를 적으며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생각해보고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행사와 보드게임, 저녁 식사(바비큐립, 피자, 볶음밥)를 함께 진행하였다.



제천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교육장상 수상

다솜인성센터

다솜 With 밴드는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감과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12명의 학생이 매주 방과 후 청소년 센터의 연습실에서 합주를 연습하였으며, 그 결과 (사)제천예총에서 주최한 제23회 제천시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에서 교육장상(성취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참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마음정화 공기정화'를 주제로 모스이끼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1388 청소년지원단과 대학생 봉사자의 도움으로 삼척시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JCI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사고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리기를 주제로 열정과 가족 사랑 그리고 주인공인 어린이만의 세상으로 가득한 시간을 가졌다.



효성그룹 다문화 아동·청소년 후원금 전달

위스타트

효성그룹은 2015년부터 위스타트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무려 1억 8천만원이다. 후원금은 강진의 육아지원센터와 흥천의 해밀인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6월

강화도 역사 문화 탐방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강화도 옥도끼 우주센터 내 우주 관련 전시물 관람 및 다양한 기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트타기 체험은 선생님과 아동이 함께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활동으로 호응이 높은 활동이었다.



소중한 나와 친구의 생일 파티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매월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생일을 맞은 아이를 축하해주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원 대상 양육기술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안 환경과 부모의 직업, 아동의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대상 가정에 알맞은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5개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담회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 5개군(해남, 강진, 완도, 진도, 장흥)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학대전담경찰관, 우리기관의 직원이 함께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역할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공유하였다.



오레오 컵케이크 만들기 문화체험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나답게 크는 아이들 수업에 참여하는 초등 아동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카스테라, 오레오쿠키, 젤리, 초콜릿을 이용하여 예쁘고 맛있는 화분을 만들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교육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스트레스 관리 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육아카페 3호점 리모델링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공동육아카페 3호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 모래 놀이터와 정글짐이 설치됐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었다. 예약자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파티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 충북연합회장상 수상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위스타트 밴드동아리 '다솜 With 밴드'가 사단법인 충북예술에서 주최한 제23회 충청북도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에서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장상(보람상)을 수상했다.



7월

올 여름 건강은 제대로 된 한 끼에서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제대로 된 한 끼' 급식 지원사업으로 '팝시클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한 끼는 '내 맘대로 골라먹는 뷔페' 특식을 지원하였다. 돌봄터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야간돌봄터 친구들에게 맛있는 한 끼가 되었다.



도래관계 향상 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돌봄 및 케어를 받던 유아 및 저학년 아동들에게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 능력 향상과 또래관계 형성·유지를 위한 규칙성과 협동심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진로 멘토링 변호사 특강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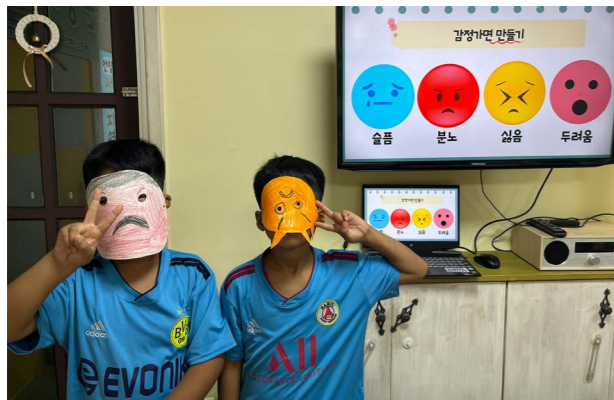
매년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와 함께 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법무법인 동인의 후원을 받아 박재현 변호사 멘토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감정 가면 쓰기

언양서부 지역아동센터

인사이드아웃 영상을 보며 평소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감정 가면을 제작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지 않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며, 감정 해소 방법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외부기관 연계 통합사례회의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기관들과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5개군 가족센터 MOU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 5개군(해남, 강진, 완도, 진도, 장흥)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일반시민 및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남도 아이 지킴이 발대식

위스타트

‘남도 아이 지킴이단’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읍·면·동에서 모두 8천6백여 명이 함께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스타트를 포함한 전문·협력기관 10여 곳도 힘을 모았다. ‘남도 아이 지킴이단’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학대 아동 발견 즉시, 행정기관 및 112 신고와 함께 복지서비스 연계된 활동을 하게 된다.



8월

바다색을 입은 귀여운 다육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소근육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예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예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다육 화분을 꾸몄다.



해양 안전교육 실시

안산중부 지역아동센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6대 안전교육 중 하나인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해양 생존체험 구명보트 탑승법 및 구조신호 보내는 방법을 배우며 각각의 상황을 아동들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1박 2일 여름 캠프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8월 11~ 12일에 실내 캠프를 진행했다. 놀이는 실내에 최적화한 오락 퀴즈, 누워 영화 보기, 파자마 파티로 구성하고 음식은 통돼지 바비큐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간식으로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한국카네기 CEO 고양총동문회 MOU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난 8월 31일, 한국카네기 CEO 고양총동문회와 고양시 내 청소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자회 수익금을 배움누리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뮤지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도계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뮤지컬 ‘학교스타그램’을 개최하였다. 또한, 무선 투표기를 활용해 공연 중 관람하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공연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집중도를 극대화했다.



홈파티

안산중부 지역아동센터

‘제대로 된 한 끼’ 지원금을 통해 홈파티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 중 친구들과 뷔페를 먹으며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홈파티를 진행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MOU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8월,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1366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당 두 기관은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보호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름방학 한 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의 양육의지 저조, 가정 경제생활 불가능 등의 이유로 방학 동안 균형잡힌 식단을 먹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다.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54가정을 선발하여, 균형 있는 식단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하였다.



가족체험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케이크 만들기'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관찰과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를 파악하여 필요한 가정에 부모상담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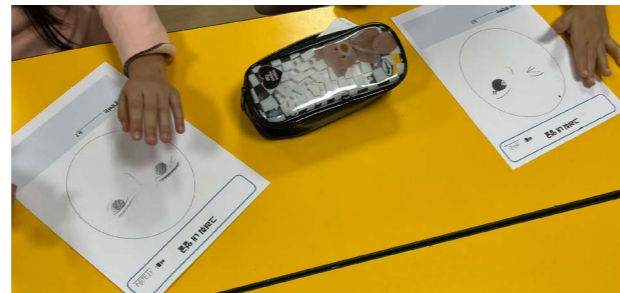


9월

그려줘 내얼굴

연양서부 지역아동센터

다양한 화가의 초상화를 보며, 초상화가 무엇인지 알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얼굴이 아닌 '친구'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서로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인의 얼굴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들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파이썬 언어 기초과정 운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2022년 영상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이어 2023년에는 코딩교육의 일환으로 '파이썬 언어 기초과정' 수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코딩 프로그램 개념부터 연산자, 문자열 관련 실습코딩 등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코딩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가스레인지 교체 및 명절 선물 나눔 봉사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 및 배움누리 청소년 파랑새 봉사단(총 10명)은 문촌마을 9단지 및 강선마을 내 취약계층 12가정을 선정해 추석을 맞이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된 가스레인지 교체하고 명절 선물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생활교육 캠페인 운영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2학기 동안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 생활교육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생활교육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퀴즈, 미션 부여, 스티커 투표, 다국어 포스터 제작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이며 참여적인 캠페인 활동에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전주비빔밥 버거 만들기

안산중부 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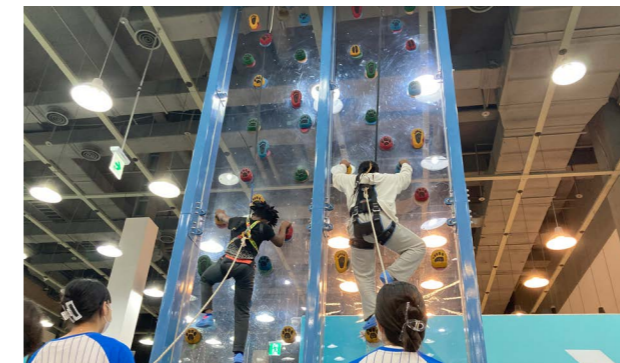
안산시글로벌 청소년센터 통합체험 활동과 위스타트의 인성수업을 연계하여 전주비빔밥 버거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다문화 친구들과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인 비빔밥과 서양의 음식인 햄버거를 변형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다양한 문화 활동

열국아이학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 협력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했다. 키즈카페 방문, 연극 관람, 여름캠프 참가, 이태원 나들이 등을 통해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시간을 보냈다.



광주,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 MOU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행복나눔터' 가족운동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 관내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나눔터 가족운동회를 진행하였다. 최종 220명이 모집되었으며, 1부에는 무드등 만들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2부는 가족운동회로 50M달리기, 달려라카트, 에어도넛, 릴레이계주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직원 워크숍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친목도모, 선진지 기관방문을 통한 사업 벤치마킹, 2024년 사업계획 구상을 위하여 9월 7일~8일 1박 2일 동안 원주에서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째날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팀별 사업을 소개받았으며 본센터의 2024년 사업구상을 위해 팀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둘째날 원주 뮤지엄산을 방문하여 안도 타다오 특별전을 관람하며 문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어쩌다아빠, 육아골든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지난 9월 9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어쩌다아빠 육아골든벨'을 개최하였다. 아빠 골든벨은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고, 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남성 양육자 20명이 참여하였고, 육아상식과 넌센스 퀴즈 등이 출제되었다.



10월

위아자 나눔장터 2023

위스타트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위아자 나눔장터 2023은 명사기증품 현장·온라인 경매 및 래플(응모권 추첨)에 이어 '에코빌리지' 등 모든 참여자가 즐겁고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 재순환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삼척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참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주관하는 2023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여하여 중,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홀랜드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어볼 수 있었으며, 나의 아바타 만들기(장점찾기) 체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자 대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최하고 삼척시와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자 대회'를 1박 2일 쉼비치 삼척에서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120명이 참여하여 우수 상담자 시상과 레크레이션 및 명랑운동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비전캠프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 비전캠프로 경주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장소 및 숙소 등을 선정하고 기획하여 경주월드,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한복체험, 양동마을 관람을 통해 하나의 추억을 갖게 되었다.



하안나래 합창단 공연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하안나래 합창단은 특기적성을 고려하여 선발된 아동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문예협에서 지원하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함께 합창연습을 하고있다. 아이들은 합창단 공연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유능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함께해요 환경사랑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갈대축제 현장에서 환경부스를 운영했다. 축제장에 방문한 가족 및 관광객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부스로 모아오면 에코백으로 교환해 주었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석 명절선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 중 한부모 및 조부모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선정하여,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였다.



11월

친구사랑 캠페인 운영

다솔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솔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11월 친구사랑주간을 정해 친구사랑 캠페인 '보물(같은 친구) 찾기'를 운영하였다. 학교 내 미션지를 숨기고, 보물을 찾은 학생은 적힌 내용에 맞는 친구를 골라 담당 교사에게 찾아가면 선물을 받는 형식의 행사로, 교우관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메이킹 스낵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초등 전학년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요리활동 시간을 마련하였다. 11월 시작, 주 1회 총 3주간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샌드위치, 컵밥, 시금치 토마토 프리타타, 생크림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었다.



청소년동반자 문화활동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반기 상담연계가 많았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동반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농장에서 수확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수확한 과일을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선물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삼척소방서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집합교육을 하였다. 소방구조대원의 진행에 따라 전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따른 대응능력을 키웠다.



수능 및 사회진출(취업) 응원데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수능과 사회진출(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배움누리 청소년 16명을 지원하기 위해 수능·사회진출 응원데이를 진행하였다.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의 응원 선물 지원과 더불어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배움누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진&완도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진군과 완도군 2곳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2월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센터에서 진행해 온 피아노 수업과 평소 칼림바와 아살라토 연주를 연습해 온 아동의 축하 공연을 진행하였다. 큰 무대는 아니지만 센터 친구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위스타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남도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으며 위스타트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연간 운영비 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 등 15명의 인원이 진도·완도·해남·강진·장흥 지역내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를 상담하고 치료·교육한다.



탄소중립 업사이클링 공예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탄소중립 업사이클링 공예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과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말목을 이용하여 벽걸이 트리를 만들고, 음료 캔들은 예쁜 화분으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성적 쑥! 실력 향상을 도운 영어 학습 시간

구리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매일 강사 지도를 통해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학습 수준과 개별 진도에 따라 학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등의 교과 학습 또한 강사지도 수업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별별산타

위스타트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는 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50여 명의 후원자들은 선물 포장과 함께 카드도 작성하였다. 후원자들이 직접 포장한 선물은 4개 기관 15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IBK캐피탈 결식아동 후원

위스타트

IBK캐피탈에서 '제대로 된 한 끼' 지원사업에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제대로 된 한 끼'는 결식 위기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급식, 특식,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IBK 캐피탈은 2019년부터 총 2억 9000만원의 후원금으로 3500명을 지원했다.



연탄런

위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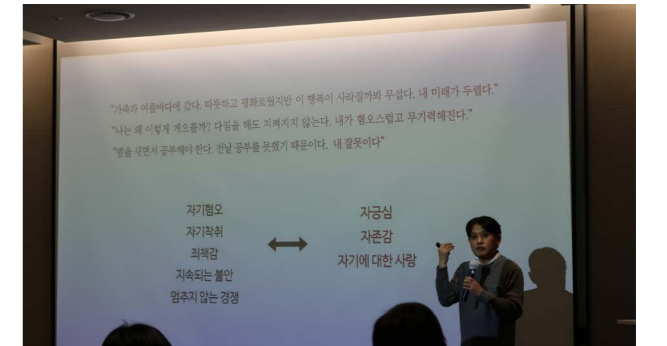
중앙그룹과 KT&G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이상학 KT&G 부사장, 김수길 위스타트 회장,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직접 봉사에 동참했다. 위스타트는 에너지 취약계층 500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성강연회

위스타트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 강연회를 열었다. 연사는 이우학교 김철원 교장으로 '삶으로서의 교육,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우리의 더 깊이있는 배움: 아이들이 보여준 희망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예비고1,2 입시 특강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예비 고1·2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입시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좋은일코칭연구소 김병식 대표의 강의로 2024년 수능분석 및 2025학년도 입시전형의 변화를 통해 대학입시에 대비한 수시전략 및 학생부 종합관리 방법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5개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남부권(해남, 강진, 장흥, 완도, 진도) 남도아이지킴이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ditor's Note

상쾌한 몸을 가진 적이 언제였을까. 얼마나 무심했는지 오래된 피로 탓에 늘 고단하다. 늦잠을 자거나 온종일 소파에 누워 있어봐도 풀리지 않는다. 단편적인 관계의 반복에 회의가 들고, 희망을 얘기하기엔 허무하고 염세적 기분마저 든다.

20. 누구에게나 설레는 숫자임에 틀림없다. 10대의 마지막인 열아홉 살을 갖 벗어나 아직 설익은 청춘의 숫자. 어설피기도 하고 과도기이기도 한 스물은 특별하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세상을 향한 모든 감각이 확장되고 경험의 스펙트럼이 이전과는 비교 불가하게 넓어진다. 성인이라기엔 불완전하고 시행착오도 잦지만, 그 덕에 아직은 용인이 되는 메리트도 있다. 이 시기를 막 지날 때만 가질 수 있는 신선함이 존재하고, 가능성은 말랑말랑하게 열려 있다. 어떤 시도든 가능하다.

이번 호를 준비하다 보니 삶에 대한 다그침과 근사한 위로들을 읽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스물이 아니어도 괜찮다. 마흔이 보기엔 20대가 그렇듯 스이 보기에는 30대가, 예순이 보기엔 40대가 그런 나이이다. 무엇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설레는 나이. 몸을 일으켜봐야 겠다.



송선민

올해부터 수영을 시작했다. 겨울은 해가 짧아 어두울 때 집에서 나와 아직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수영장에 도착한다. 3개월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이제는 집을 나서면 어스름하게 해가 뜬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매번 몸을 일으켜 수영을 간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을 뿐인데 스스로가 기특하고 대견하다. 심지어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너무 작아서 인지하지 못할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민영

위스타트의 20주년을 맞아 나의 스무 살을 되새겨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열정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스타트도 긴 세월 동안 어려운 도전과 과정 속에서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업, 통합사례관리 등 굵직한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나눔장터인 위아자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에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여정은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꿈 많은 스무살처럼 더 나은 세상,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길 응원합니다.



박지연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각자의 환경, 각자의 기질, 각자의 고민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스무 살 이전의 나는 남에게 맞춰가기 급급한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다움'이 가장 잘 발현되었다.

위스타트의 스물,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수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쳐 온전히 위스타트만의 색을 갖춰왔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 다짐했던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스타트의 속도에 맞게 지나온 시간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응원한다.



임주혜

스무 살의 위스타트, 여전히 꿈꾸기를 소망한다.

나의 스무 살. 실패가 두려워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잣대에 맞춰 사는 게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 일은 허황된 것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깨닫는다. 포기의 역사보다도 도전의 역사가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꿈은 꾸는 자의 몫이다.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할지라도 도전과 실패의 흔적이 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히 빛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스무 살의 위스타트여! 앞으로 또 20년 그리고 또 20년 계속 꿈꾸고 도전하는 위스타트가 되기를 바란다.



이경희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스무 살의 나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에 실패해, 다시 1년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보다 뒤쳐진 기분이었다. 그저 대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던 그때에는 그 고비를 넘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했었다.

십 년도 더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내 스무 살은 실패가 아닌 과정이었고 경험이었다.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무엇이든 배우고 깨달았다.



김예은

위스타트가 벌써 20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며 달려온 위스타트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위스타트가 일궈온 모든 일이 아이들에게 탄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굳건히,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걸은 만큼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시도해온만큼 앞으로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혜림

스무 살, 대학 전공책에서 처음 본 '위스타트'를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만 7년이 지나 위스타트 20주년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네요! 위스타트의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위스타트의 구성원으로 아이들과 후원자님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린 말은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100원, 1000원이 모여 수천만원의 후원금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가 모여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 앞으로 30주년, 40주년까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이다현

세상에 나서는 누구나 행복한 꿈을 꾸다. 위스타트도 그랬다. 새롭게 만든 모델과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덕이었다. 2014년 10주년을 맞이한 위스타트는 국책화를 성공시키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하는 꿈을 꿔다. 고민끝에 위스타트는 심리정서를 보듬어 주는 '인성'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이제 위스타트는 스무 살이다. 스무 살의 위스타트는 무슨 꿈을 꾀야 할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성장에 대한 꿈을 꿔다면 이제는 성장에 대한 꿈을 꾸고 싶다. 위스타트가 어떻게 자라왔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어른스러워져야 할지 출발부터 전과정을 하나 하나 곱씹으며 그간을 돌아보고 싶다.

그런 성찰이 20주년, 성인이 된 위스타트의 앞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스무 살의 위스타트가 꾸는 꿈과 나의 꿈을 동기화하고 싶다.



박병헌



아이들 마음속 멍을 보아주세요

위스타트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기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후원문의 1577-9572

위스타트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